



✝ 가톨릭 마산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4년 4월 7일
제2612호



자비로우신 주님(사그랏 코드 성당, 스페인)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사도 4,32-35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서 1요한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복 음 요한 20,19-31
영 성 체 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이동진 안셀모 신부

현지사목(일본 삿포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부활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며 노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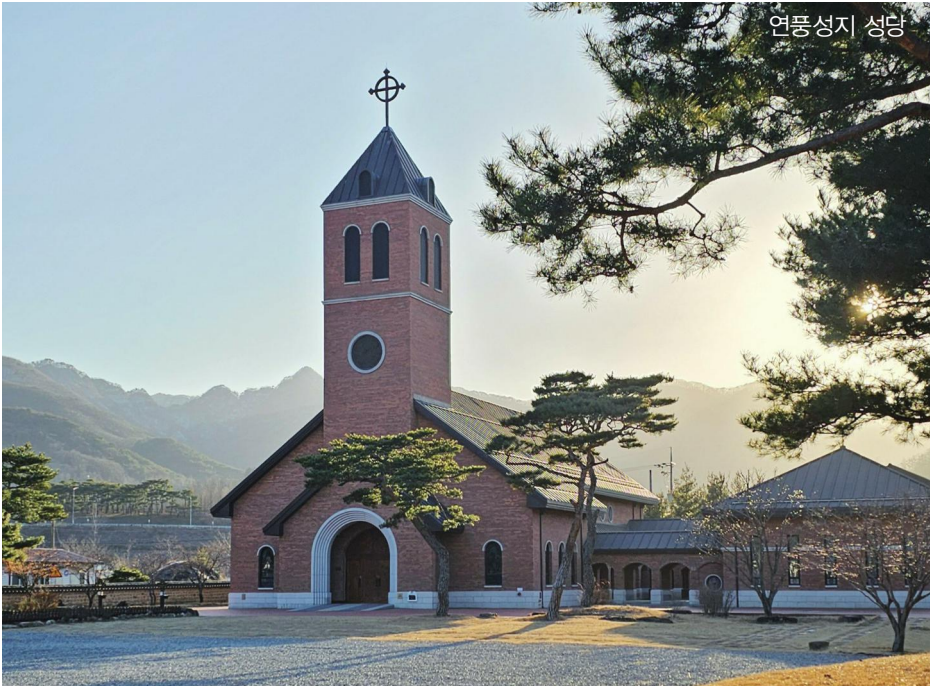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찬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행복한 부활절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서로에게 왜 축하의 인사를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께 국한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잘못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쉽게 죄를 지을 때가 많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사순절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벗어났던 하느님의 자비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부활은 우리의 연약함과 노력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부활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며 노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로 다시금 되돌아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에 감사드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를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부활을 더욱 기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더욱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나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풍에 날다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 가톨릭문인회

날아서 새도 넘기 힘들다는 고개
두 팔 벌려 안아주면
삭풍의 소백산맥도 숨죽여 따뜻하다
민들레 홀씨처럼 이산 저산 날아다니는
복음의 씨앗들 머리 곳곳하게 들어
푸른 하늘 이고 지고 어린아이 앞세워
새 은신처로 가는 길
바람 부는 대로 갈 양이면
구름도 넘는 산맥일 양이면
당신의 접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기도가 유일한 양식이던 산촌의 하루는 짧고
말 못 하고 형구들 당기는 줄에
둘둘 말린 병인년이며 빛나는 이름이며
생명과 사멸이 산으로 둘러싸인 연풍엔
갈매못에서 목숨 바친 황 루카 성인이 산다
풍요로움과 아늑함이 이어지는 산과 산
이곳이 하늘 아래 천국이다
거룩한 한 폭의 그림이다

연풍성지

연풍성지는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기 교회 신앙공동체가 있었고 병인박해 때에는 교우촌 신자들이 연풍 관아로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한 치명터가 있는 곳이다. 1963년 연풍공소로 사용하기 위해 옛 향청 건물(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3호)을 구입하고 보니 순교 터였다고 한다. 병인박해 때 충청도 갈매못에서 순교하고 1968년 10월 6일 시복식을 한 황석두(루카) 성인의 고향이 연풍으로 알려지면서 성역화가 시작되었다. 1979년 순교현 양비를 세우고 문중 산에 묻힌 유해를 확인한 후 수안보본당에 안치하였다가 1982년 8월 25일 연풍성지로 천묘遷墓하여 노기남 대주교 주례로 축복식을 가졌다. 성지 내에는 높이 8.5m의 십자가상과 황석두 성인의 입상과 묘지가 있다. 청주교구에서는 황석두(루카)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14년에 기념성당을 봉헌하였다.





하느님의 자비 신심 5가지 – 그 가운데 으뜸은 하느님 자비의 축일(주일)

채동호 루도비코 신부/ 수산본당 주임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축일(주일)’이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흠송하고 찬양하는 전례를 늘 교회의 가장 중심에 놓고 생활한다. 그러므로 전례력 안에서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의 자비 축일이 되었기에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 5가지 가운데 **하느님의 자비 축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 자비의 사도인 성녀 파우스티나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새로운 형태 5가지**’ 메시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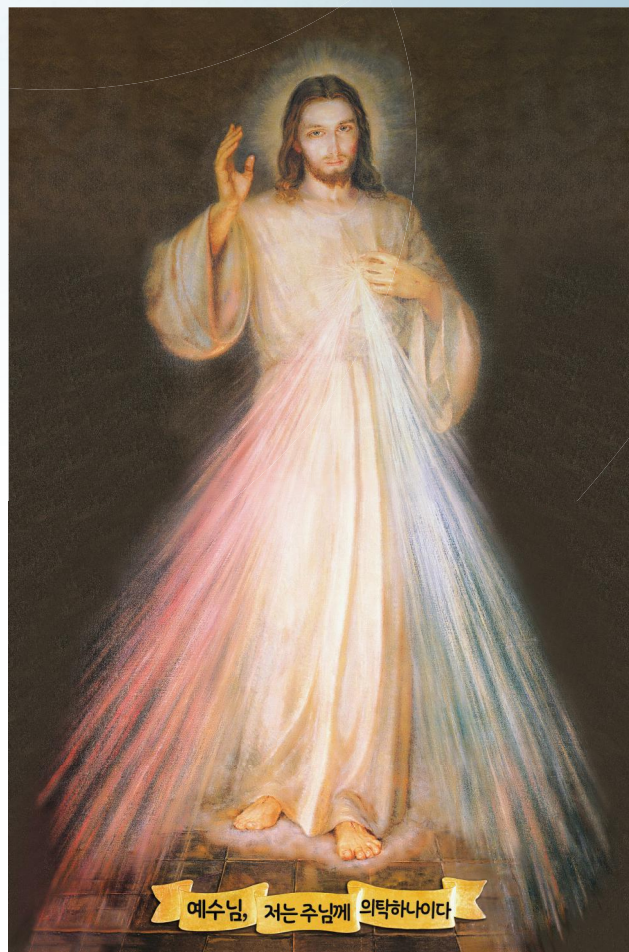
1.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 1931년 2월 22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셨다. 한 손은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한 손은 가슴의 옷을 잡고 계셨는데, 왼편 가슴에서 두 줄기 빛, 곧 붉은빛과 옅은 빛이 나왔다.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본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라는 말을 적어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전 세계를 통하여 공경 받기를 원한다.(일기 47)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일기 48)

2. 하느님 자비의 축일(주일): 1931년, 예수님께서는 자비상의 제작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느님 자비의 축일 제정을 원하셨고, 그다음에 최소한 14번이 넘는 계시에서 전례력 안에 이 자비의 축일이 놓여지고, 이 축일 제정의 이유와 목적, 이 축일을 준비하고 거행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히 하셨다. 주님께서는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하셨고, 교회는 2001년부터 부활 후 첫 주일을 하느님 자비 축일(주일)로 지내고 있다. 이 축일을 맞기 위해 성금요일부터의 9일 기도와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필요하다.

3.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 1935년 9월 13일, 주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일러 주셨다.(일기 474~476)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며 하느님 자비의 신심의 정신과 일치하여 우리는 우리와 온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 중에 온 세상의 죄인들, 사제들과 수도자들, 임종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비의 행위를 수행한다.

4. 하느님 자비의 성시간: 1937년 10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의 시간(오후 3시)을 특별한 방법으로 흠송하도록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을 ‘세상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시간’이라고 부르셨다. 1938년 2월에 이 요구를 반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 자비의 시간 목적과 거기에 덧붙여지는 약속, 그리고 그 준수 방법도 분명히 하셨다. “네가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자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의 자비 속으로 잠겨 들도록 하여라.”(일기 1572)

5. 하느님 자비 신심의 전파: 1937년 4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모성적인 돌보심과 임종의 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일기 1075) 특히 사제들이 사람들에게 하느님 자비 신심을, 특히 설교를 통하여 전파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설교나 강의나 어떤 기사를 통하지 않고 성녀 파우스티나처럼 자신의 삶 안에서 침묵 중에 고통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기도와 일을 통하여, 그리고 매일의 어려움들을 봉헌함을 통하여 하느님 자비 신심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으로 땅을 채우고

정세정 아숨타 시조시인/ 가톨릭문인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창세 1,28)

친정도 3남 2녀 시댁도 3남 2녀로 대가족에서 자란 나는 2남 2녀의 엄마다. 우리가 결혼할 무렵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책에 따라 우리 포래의 사람들은 대개 둘만 낳았다. 어느 해인가 동창회에 가서 4남매를 둔 친구 몇몇이 다자녀상품을 타기도 했다.

네 명을 낳고 키우기는 참으로 힘들었고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 내 건강을 챙기기도 어려웠다. 넷째 아이를 낳게 되자 5남매를 낳아 키운 친정어머니가 옛날에는 대가족이 같은 집에 사니까 할머니와 고모도 도와주셨고 다 큰 자식이 막내를 돌보기도 했지만 이제 혼자서 네 명을 어떻게 키울까 하며 딸인 나를 걱정하시던 때가 있었다.

점점 핵가족이 많아지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대세라 육아와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의식주 해결이 큰 문제로 목전에 닥치니 젊은이들이 아기 낳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자연 스럽게 결혼을 안 하거나 한 명만 낳겠다는 신혼부부가 늘어나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소멸까지 걱정될 정도라니 많이 낳기를 장려할 만하다. 많이 낳던 풍조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계산에 밝아져서 풍요롭고 편안한 이기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자녀가 많으니까 늘 먹을 게 부족해서 아이들이 편식할까 걱정한 적이 없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고 주장한 아이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아들딸 개개인의 복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고 믿은 신앙생활도 80세를 앞두고 돌아보니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형편에 맞춰 성실하게 살아가는 4남매가 고맙고, 뒤늦게 취미생활도 하면서 귀농예술인이 되었으니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삶으로 안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하늘나라 가신 서상자 힐데가르드 수녀님께서 10여 년 전에 한 장의 쪽지를 주며 성령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내 생명을 사랑스럽다 하셨으니 나도 많은 생명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야겠다. 그 쪽지에 있는 내용을 쓰며 사랑을 나누고 싶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아숨타 님,/ 아스라이 복음의 파도가 밀려오던 날/ 복스러이 내 품에 안겨온 사랑스러운 생명이며,/ 보고 또 보아도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귀한 짝꿍이어라./ 너 또한, 새벽하늘 새벽처럼 영롱하고 찬란한 빛의 샘이어라./ 무지개의 화사한 빛살을 풀어내면서/ 우울했던 기운을 벗어낼지어다./ 사노라면 겹쳤던 무거움들을 내가 다 거두어 주리라./ 빛으로 다가온 여인이여~”

교구장 서리 동정

재무평의회

일시: 4월 9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견진성사

일시: 4월 14일(주일) 10:30
장소: 태평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 사목 방문

일시: 4월 11일(목)
본당: 하동/ 진교/ 서포선교

교구/본당

성경 교육봉사자 성지순례

일시: 4월 9일(화)
장소: 한티성지

재무평의회

일시: 4월 9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일시: 4월 12일(금) 14:00
장소: 교구청

청년 성서 에파타 “폐제기도에 초대합니다.”

일시: 4월 26일(금) 19: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지하 경당

위원회/기관/단체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할인&수료이벤트

내용: 복수과목 신청시 할인 & 수료시 25,000 포인트 지급(단과 제외)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일시: 4월 16일(화)~17일(수) 09:00~17:0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파티마 홀(5층 강당)
수강료: 4만 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및 문의: 055·270·1648/ 1650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수증 발급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부활 피정

일시: 4월 27일(토) 14:00~28일(주일) 14:00 1박 2일
장소: 원주 본원/ 피정비: 2만 원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박 블라시오 아빠스님과 함께하는 피정

일정: 1차-5월 1일(수) 15:00~2일(목) 14:00
2차-5월 15일(수)~16일(목) 1박 2일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집
참가비: 8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접수)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5월 14일(화) 11:00~15일(수) 16:00 1박 2일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분들
회비: 8만 원(사전 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010·5490·5345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 피정 접수 중)
일시: 4월 28일~5월 1일(추차도)/ 5월 2일~4일/ 5월 6일~8일/ 5월 17일~19일/ 5월 22일~24일/ 5월 26일~29일 (추)/ 6월 1일~3일/ 6월 12일~14일/ 6월 16일~18일
문의 및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5월 14일~16일/ 5월 27일~29일/ 6월 10일~12일/ 6월 22일~24일
성지순례: 4월 25일~28일/ 5월 2일~5일/ 5월 8일~11일/ 5월 19일~22일
문의 및 접수: 02·773·1463, 064·756·6009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4월 8일(월) 19:00	중앙동성당	제1강 하느님 사랑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월 14일(주일) 15:00	봉래동성당	010·9464·2089	-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20ml/15ml
힐데 바누 100ml
힐데 샴푸 400ml/200ml
힐데 바누 65g
힐데 크림 20ml
힐데 크림 12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차도) 매주 출발
4월 12일(금)~14일(주일)-수원교구 3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5월 13일(월)~16일(목)-일본 나가사키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 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32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시: 4월 19일(금)~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10·8864·7067/ 010·9113·7062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15일(월) 19:30
장소: 사파동성당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교구 성소 주일 행사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사무 3,5)

제61차 성소 주일을 맞아 교구에서 성소 주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4월 21일(주일) 10:30
장소: 교구청(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문의: 성소국 055·249·7061

▶ 교구 성소 주일 행사 초대 영상은 교구 홈페이지 (<http://cathms.kr>) 및 유튜브(QR코드로 접속)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마감: 4월 15일(월) 도착분에 한함(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교리교사 혹은 다양한 신앙 활동 참여자 우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접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96)

문의: 사무처 055·249·7016

▶ 면접일자 개별 통보

교구 가톨릭문인회 피정



교구 가톨릭문인회 회원들은 3월 23일 교구청에서 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피정은 김용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의 진행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날 피정에는 가톨릭문인회원 26명이 참석하였으며, 문인회원들은 피정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묵상하였다.

복자 신석복 마르코 치명 기념 도보순례



복자 신석복 마르코 치명 기념 도보순례를 3월 23일 실시하였다. 이번 순례는 1866년 3월 31일 순교한 복자 신석복 마르코 158주기를 기념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도보순례에는 140여 명의 순례자가 참석하여 함께 순교자가 압송되었던 길을 걸으며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9,23)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어진 십자가의 길과 찬양 음악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주간이 되었다.



빈 무덤과 오토니아

항봉철 베드로 신부/ 성사전담

부활 성야 복음과 부활 대축일 복음은 빈 무덤 이야기이다. 내용은 안식일이 지나자 몇몇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누가 무덤 앞을 막아 놓은 큰 돌을 치워 줄까를 걱정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도착해 보니 그 돌은 치워져 있었고,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는 되살아 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마르 16,1-6 참조).

마태오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사기꾼이(πλάνος-플라노스: 예수님을 지칭)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경비병들을 시켜 그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몰래 그 시체를 훔쳐내고, 그가 되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된다(마태 27,62-66 참조). 이 경비병들이 무덤이 빈 사실을 수석 사제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원로들과 의논한 끝에,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자는 동안,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고 소문을 내게 하였고,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져있다고 전한다(마태 28,11-15 참조).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인 루카(24,12)와 요한(20,5-7)을 보면 위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 루카에서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설마 하고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은 비어있고 아마포만 남아있었다 하고, 요한도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을 달려가 보았더니, 아마포와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아마포**는 무엇을 말하는가? 히랍어의 오토니온(οθονιον)을 번역한 것인데, 그 번역이 다양하지만(공동번역-수의: 1962년 신약성서(가톨릭)와 200주년-염포: 1961년 관주번역-세마포: 2001년 성경전서(개신교)-삼베: 킹 제임스(1611)와 1992년 영어번역-아마-옷: 독어 공동번역-아마-봉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주검을 찼던 아마로 짠 천을 말한다. 이 단어가 여기서 복수로 쓰였으니, 그 아마포는 여러 조각이었다.

만약 마태오처럼 경비병들이 자는 동안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면, 제자들이 그분의 몸을 찼던 수의를 벗기고, 그분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풀고 얹전히 모셔갈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있었을까? 무덤이 비었고 거기에 수의와 수건이 따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그분의 주검을 훔쳐 간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몸에 감겼던 천을 풀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을 벗고 다시 일어나서서 무덤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누가(천사나 하느님께서) 풀어 주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가서 무덤이 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인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공판복음이나 요한도 다 같이 전한다. 당시 유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여인들이 나설 수 없었다고 한다. 성서적 근거는 사라가 하느님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란(창세 11,15 참조). 그래서 루카에서는(24,11)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헛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지만, 남자인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있다. 요한은 한 사람의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작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와 요한, 둘이 무덤으로 달려가, 여인들이 전해 준 사실을 확인한다.